

## 금강유역의 언어와 문화

도수희

(충남대 명예교수)

### I

1.1. 이 글은 ‘금강’의 어원과 어의부터 먼저 고찰한다. 그 다음에 발원지로부터 강구(옛 白江口)에 이르기까지의 중류 이상의 천변과 그 이하의 강변에 분포한 중요 지명중에서 선별된 지명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금강’을 중심으로 한 언어와 문화의 분포 양상이 종적인 분포인가 아니면 횡적인 분포인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1.2. 이 글은 ‘금강’ 유역의 언어 분포가 강을 사이에 둔 양 지역 간의 대립 현상인가 아니면 강의 상·중·하류의 지역 간에 상이한 언어권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게 된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표본으로 삼아 음운론적인 특징을 밝히기로 한다. 그리고 江을 사이에 둔 양안 지역 간의 언어가 독립적 핵 방언권을 형성할 만큼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계 된다.

아울러 ‘금강’과 관련이 있는 강변 인근 지역의 옛 지명을 비롯하여 강변에 고착된 옛 지명을 풀이하는데도 주력하게 된다. 지명어는 한국학의 기초 정보를 지니고 있는 국어 자료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기술은 관련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1.3. 모든 문화는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글이 이룩하는 논

의 결과가 역사, 전설, 민속 등의 인접 학문에 도움이 되기를 희구(希求)한다. 특히 옛 지명의 풀이는 고전문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도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II

2.1. 먼저 ‘금강’의 어원, 어의, 유맥(流脈)에 대하여 고찰기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금강(錦江)이란 강명은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삼국사기』(1145), 『일본서기』(720) 등의 고문헌에는 ‘금강’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 강의 전신인 ‘백강·백촌강·사비하(白江·白村江·泗泚河)만 나타날 뿐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권149, 충청도조)(1454)에 “공주에 이르러 ‘금강’이 된다”(公州爲錦江)와 같이 최초로 ‘금강’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인 호칭은 ‘웅진’(고마느르)이었음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제15장)(1445)의 “公州 | 江南을 저하사子孫을 무르치신들…”에 나오는 ‘공주 강남(公州 | 江南)에 대하여

이 강은 곧 고마느르(熊津)인데 연기현으로부터 흘러와서 공주의 북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부여에 도달하고 서천 단개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卽熊津고마느르也 來自燕岐縣 過公州之北 西流達于 扶餘 至舒川鎮浦 단개 入于海

와 같이 주석한 ‘고마느르’(熊津)이었다. 위 주석은 ‘웅진’(熊津)이 연기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연기(燕岐)의 백제 지명인 ‘두내기’(豆仍只)가 지니고 있는 뜻이 ‘동진강(東津江)+신탄강하류(新灘江下流)⇒두내(合江)’였다면 이 합류처부터 부여 백마강 이전까지를 ‘고마느르’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조선조 초기까지만 하여도 ‘웅진’이 보편적으로 통용된 강 이름이었다. 아마도 별칭인 ‘금강’이 기존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생소한 존재이었던 것 같다. 문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바로 그 증거이며

또한 이로 미루어 볼 때 ‘금강’의 발생은 비교적 후대 즉 일러도 고려 시대의 말기 지음으로 추정된다.

‘금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소개는 『동국여지승람』(권15 옥천조)(1481)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처음인 듯하다.

‘적등진’(군의 남쪽 40리에 있다. 그 근원은 셋이다. 하나는 전라도 덕유산에서 오고, 하나는 경상도 중모산에서 오고, 하나는 본도의 보은현 속리산에서 온다. 군의 동쪽을 경유하여 거탄이 되고 동북으로 흘러서 화인진이 되고 회인현을 지나 미흘탄이 되고 문의현에서 형각진이 되고 공주에 이르러 먼저 금강이 되고나서 웅진이 된다.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되고 임천과 석성의 경계에 이르러고성진이 되고 서천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 간다(赤登津(在郡南四十里 其源有三 一出全羅 道德裕山 一出慶尙道中牟縣 一出本道報恩縣俗離山 經郡東爲車灘 東北爲化仁津 過懷仁縣爲末訖灘文 義縣爲荊角津 至公州爲錦江爲熊津 至扶餘爲白馬江 至林川石城兩邑界爲古城津 至舒川郡入海).

위 내용 중 “공주에 이르러 먼저 금강이 된 다음 웅진이 된다”(밑줄부분)는 설명을 근거로 ‘금강’은 ‘웅진’ 안에 위치한 보다 작은 강명으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자료 중 (2)은 공주의 동5리에 이르러 ‘금강도’(錦江渡)가 된다하였고, (5)는 ‘웅천하’(熊川河)의 동북5리에 위치한다고 밝히었다. 따라서 ‘금강’은 ‘금강나루’란 나루 이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금강’은 ‘웅진’ 안에 위치한 일개 나루 이름으로 발생하였지만 후대에 ‘웅진’의 별칭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 지칭 범위도 ‘웅진’과 동일하게 확대되었다. 여기까지가 ‘금강’의 제1단계 격상이다. 보다 후대로 내려오며 여전히 ‘웅진’(곰나루)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강 전체를 통칭하는 강명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여기까지가 ‘금강’의 제2단계 격상이다. 그러나 발원처(發源處分水峙)로부터 강구(江口)에 이르는 전체 유역 중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부터가 강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명소 ‘津’과 ‘江’이 두루 접미되는 지명부터 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동진강~합강, 신탄진~신탄강’ 등과 같은 복수지명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강과 하천이 문화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2.2. 위 자료 중 밑줄 친 대목은 ‘錦江=熊津’임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둘 중에서 ‘웅진’이 고형이니 한역명인 ‘熊津’의 고유어 ‘고마느르>곰나루’의 ‘곰’을 비슷한 음자로 차자 표기한 것이 ‘錦’이라 추정한다. 만일 ‘錦’이 훈차자라면 ‘錦江’의 고유어는 ‘김>림’이 되기 때문에 (고마>)‘곰>림’과의 불일치로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곰’이 ‘곰’을 적은 것이라면 강명의 변천 과정은 ‘고마느르(熊津)>곰나루(熊津)>금(=곰)가람(錦江)’이 된다. 따라서 ‘錦江渡’로 출발한 ‘금강’은 1차 격상하여 ‘웅진’과 동격인 별명으로 한 동안 함께 쓰이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시 범위가 확대되는 2차 격상으로 결국 강 전체를 지칭하는 통합 명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일이고 중세 이전으로 올라가면 전체를 포괄 지칭하는 강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 자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중류 즉 ‘동진강’(혹은 습江) 이전까지는 거의가 곳에 따라 나루이름(津名)으로 불리었고, 공주를 중심으로 하류로는 ‘백마강’까지 상류로는 ‘동진강’까지를 ‘웅진’으로 부르다가 근래에 별칭인 ‘금강’과 병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부여의 ‘사비강>백마강’으로부터 강구(江口)까지를 ‘백강(白江)이라 통칭하였으니 본래에는 ‘금강’은 공주를 중심으로 한 부분 명칭이었을 뿐이다. 아마도 한낱 부분 명칭에 불과하였던 ‘금강’이 강 전체를 통칭하게 된 배경은 ‘공주’가 백제의 수도, 당의 웅진도독부, 고려 시대 이후로도 충청도의 행정부가 위치한 요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후대의 지지(地誌)들은 다음과 같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근간으로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였을 뿐이다. 그래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에 다음에 제시하여 참고토록 한다.

(1) 공주 북쪽에 이르러 금강이되고 남으로 꺾여 흘러 웅진이 되고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된다(至公州北爲錦江 南折而爲熊津 至扶餘爲白馬

江).<『열려실기술』 권16 지리전고>

(2) 금강 또는 웅진수라고도 한다. 그 근원이 전라도 장수진안무주용담 등현에서 나온다. -중략- 공주동5리에 이르러 금강나루가 된다(錦江 又名熊津水 其源出全羅道長水鎮安茂朱龍潭等縣 -中略- 至州東五里爲錦江渡)<전국지리지 『동국여지지』③(한국지리총서, 아세아문화사간)>

(3) 금강 보은속리산에서 시작하여 옥천군을 지나 적등진이 되고 -중략- 공주에 이르러 금강이 된 다음 웅진이 되고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된다(錦江 源出報恩俗離山 過沃川郡爲赤登津 -中略- 至本州爲錦江爲熊津至扶餘縣爲白馬江)<『여지도서』상 >

(4) 동진은 근원이 셋이 있다. 하나는 진천 두타산에 있고, 하나는 청주 적곡에 있고, 하나는 전의 갈기에 있다. 동진 남쪽에서 합류하여 공주 금강으로 들어 간다(東津 其源有三 一出於鎮川頭陀山 一出於淸州赤谷 一出於全義葛岐 合流東津南 入于公州錦江)<상동서 상 485>

(5) 금강 본 웅천하의 동북 5리에 있다. 근원은 장수 수분티이다(錦江本熊川河東北五里 源出長水水分峙)<『대동지지』권5:91>

(6) 금강 즉전라도 금산군의 금수하류인데 그 근원이 장수 진안 무주 용담 등의 현에서 비롯한다(錦江 卽全羅道錦山郡錦水下流 其源出長水鎮安茂朱龍潭等縣)<『동국여지지』③>

요컨대 현재 광역시의 명칭으로 격상한 ‘대전’이 ‘대전(마을)<대전(리)<대전(면)<대전(군)<대전(부)<대전(시)<대전(직할시)<대전(광역시)’와 같이 격상되었듯이 ‘금강’도 ‘금강(진)<

웅진~금강<금강~웅진+백마강+백강<금강(상류+하류의 통칭)과 같이 확대 격상하였다.

‘錦江’은 ‘熊津의’ 별명이기 때문에 그 어의에 관한 풀이는 다음 4.2. 절에서 아울러 기술하기로 하겠다.

### III

#### 3.1. 언어 분포의 특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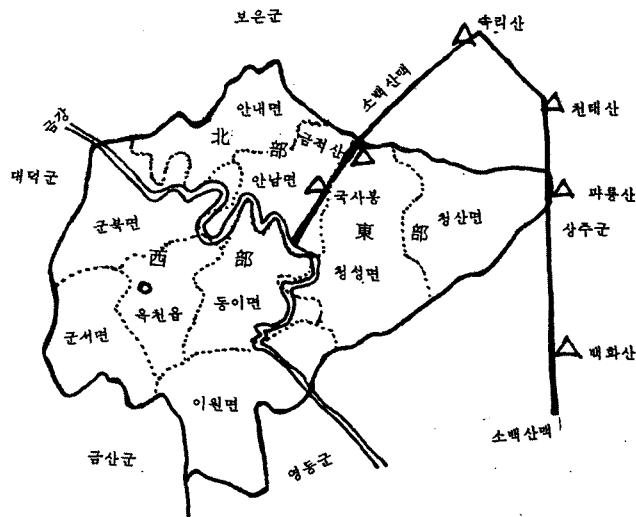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강’의 최상류 지역의 언어 분포가 아주 특이함을 이

미 여러 방언학자들이 비교적 치밀하게 구명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곳이 영동·황간·무주 등 충청·전라·경상 3도의 경계지역을 이루는 까닭으로 방언 분화가 독특하게 일어난 표본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 구역이 다른 데서 발생한 생활권의 사회적 이질화가 그 형성 배경이지 결코 江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곳은 江이 아니라 아직은 하천(河川)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옥천’(沃川) 지역을 하나의 표본으로 하여 언어 분포의 특징을 고찰키로 한다. 『동국여지승람』이 ‘금강’을 설명하면서 표제어로 삼은 진명(津名)이 곧 옥천군의 ‘적등진’(赤登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도표1>과 같이 ‘금강’이 군의 동서간의 중앙을 관류(貫流)할 뿐만 아니라 그 동부(옛 청산현)는 신라 시대부터 조선조 태종 13년까지 내내 경상도에 예속되어 있었고, 또한 속리산에서 뻗어 내린 소백산맥이 ‘금강’과 만나 동부와 서부 지역을 양분(兩分)한 독특한 지형을 이룬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표1> 옥천군도

\* 가로 = 13cm      세로 =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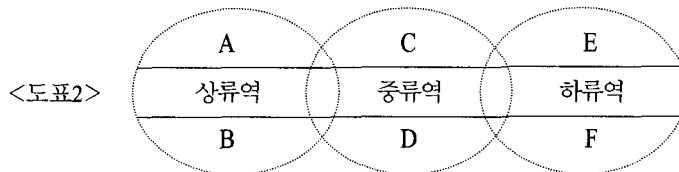
‘옥천’ 지역은 역사지리적인 특성과 자연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언어권을 형성하였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생성된 동부와 서부의 방언 특색은 이곳을 관류하는 ‘금강’이 동서를 양분하는 자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산현’(靑山縣)과 ‘상주군’(尙州郡)을 가르는 소백산맥이 경상도 방언의 동진(東進) 세력을 상당히 저지한 듯하다. 다시 말하자면 충남 방언의 세력이 금강에 막혀 동진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서진(西進) 내지는 북진(北進)하였을 경상도 방언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소백산맥의 저지를 받아 약화되었고, 금강의 이차적인 저지로 말미암아 결국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상이한 방언권을 형성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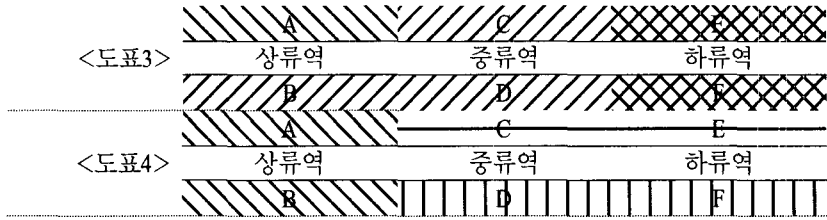
### 3.2. ‘옥천’ 지역어의 분포 특징

- (1) 옥천 방언의 지역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동부는 /+y/ > /i/, 서부는 /+y/ > /+/, 북부는 표준어 /+y/가 그대로 쓰인다.
- (2) 서부 지역에는 성조가 없고 동부 지역에는 성조가 있다.
- (3) 자음변동 중 특히 구개음화규칙과 경음화규칙 등이 동부·서부·북부 지역간에 상이한 현상을 나타낸다.
- (4) 모음변동 중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의 특징은 위 (1) 이외에 w계 이중모음이 서부지역은 충남방언과 동일하나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조성귀, 1983).

### 3.3. 언어 특성의 상하(종적) 대립과 좌우(횡적) 대립 문제

다음 도표 <2>, <3>, <4>를 통하여 방언권(혹은 문화권)의 형성을 가정할 수 있다.





우리는 위 <도표 2-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언권의 형성을 가정할 수 있다.

- 가정 1; 상류역=중류역=하류역 (<도표2> 참고)
- 가정 2; A지역 : B지역 대립, C지역=D지역, E지역=F지역(<도표3>참고)
- 가정 3; A지역=B지역, C지역:D지역 대립, E지역:F지역 대립(<도표4>참고)
- 가정 4; -----
- 가정 5; -----

위 가정 중 ‘금강’ 유역의 언어 분포는 ‘가정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금강 유역의 상류 지역을 옥천 지역 이상으로 확장할 때 이 상류 지역에는 여러 방언권이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하는 중류의 양안(C지역과 D지역)이 동일한 충청도이고 하류만이 전북(E지역=익산, 부안, 옥구, 군산)과 충남(F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는 충청도 방언권을 형성하게 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전라 북도와 동일 방언권을 형성하게 된다.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언어의 특징은 거의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하류지역은 마한(馬韓)부터 백제(특히 웅진, 소부리 시대)까지 동일 문화권의 역사적 배경이 밀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안(E지역과 F지역)이 동일 방언권으로 묶여 있는 방언 특징은 대체적으로 하농복희(下濃上穉)로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 4.1. 옛 지명 ‘고시산군’(古尸山郡)에 대하여

‘고시산’은 현 옥천의 옛 지명이다. 이 ‘고시산’을 신라 경덕왕(16년 757)이 ‘관산(管山)으로 개명하였고, 고려 태조(23년, 940)가 ‘옥주(沃州)로, 조선 태종(13년 1413)이 다시 ‘옥천(沃川)으로 개정하였다. 그 개정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古尸山>管城>沃州>沃川’과 같다. ‘고시산’ 풀이의 열쇠는 ‘관산’과 ‘옥천’ 그리고 ‘고시’의 별칭인 ‘고리’(古利)가 쥐고 있다. 경덕왕의 지명개정 원칙이 되도록이면 본 지명을 한역하려는 의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管’과 ‘沃’의 고훈을 찾아서 혼독하면 정답을 얻게 될 것이다.

‘管’의 중세국어 훈은 ‘:골 관(管)<『훈몽자회』(상 5)(1527)>이다. 한편 인근에 ‘환산성(環山城)’(환산은 옥천군의 북쪽 16리에 있다-環山 在郡北十六里)<『동국여지승람』( 옥천군 산천조)>이란 고지명이 있는데 이 ‘環’의 고훈도 ‘고리’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古尸’를 ‘古利’<『삼국사기』(열전3 김유신하)>로 달리 적기도 하였다. 이 동명이기(同名異記)가 ‘古尸’를 ‘고리’로 읽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고지명인 ‘阿尸兮 一云阿乙兮’, ‘文峴~斤尸波衣’의 표기에서 ‘尸=乙’, ‘文(글)=斤尸(글)’와 같이 ‘尸’가 ‘ㄹ~을’로 나타남도 또한 이에 뒷받침이 된다. 고려 초기의 개정명인 沃州의 ‘沃’의 고훈도 ‘:걸-’(<건 사해=沃土)<『소학언해』(四 45)(1586)>이니 ‘고리>걸’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古尸’를 한역한 훈음이 ‘골(管)~고리(環)>걸(沃)’이며 ‘古尸’의 이표기가 ‘古利’이기 때문에 우리는 ‘古尸’를 음차 표기로 보고 ‘고리>골’로 해독할 수 있다. 이 지명의 해독에서 ‘尸’가 ‘시’ 아닌 ‘리~ㄹ’인 사실은 향가 표기의 ‘尸’를

屋尸옥-ㄹ, 於尸어-ㄹ, 理尸리-ㄹ, 乎尸을-ㄹ, 道尸길-ㄹ, 宿尸자-ㄹ  
(김완진 해독 慕竹旨郎歌)

로 해독하는데 확고한 바탕이 된다. 鄉札 표기 보다 고지명의 표기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 4.2. 옛 지명 ‘웅진’(熊津)에 대하여

‘웅진’은 ‘고마느르’를 백제 시대에 한역한 한역 지명이다. 한역 표기명이 지명으로 어휘화하기까지는 아주 오래 걸린다. 상당한 기간 그것은 오로지 표기어로 쓰일 뿐 실제로는 고유지명을 부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熊津’의 ‘熊’은 ‘곰’의 뜻은 버리고 오로지 훈음인 ‘고마’만 차음하여 ‘北, 後, 大’의 뜻인 고유어 ‘고마’를 표기한 차자이었다. 따라서 ‘고마느르’는 ‘北津(後津, 大津)’이란 뜻이다. 위에 제시한 자료 중 『세종실록』의 ‘공주북쪽을 흘러 지난다(過州北流)’, 『용비어천가』의 ‘공주의 북쪽을 지난다(過公州之北)’, ‘금강은 본 웅천하의 동북 5리에 있다(錦江 本熊川河東北五里)’가 역시 ‘북진’(北津)임을 증언한다. 이 지명은 ‘고마느르>곰느르>곰나루’로 변하였다. 한편 신라 통일 이후 ‘웅진주>웅주’(熊津州>熊州)로 축약된 후 ‘웅주’는 고유어 ‘곰골’로 호칭되었다. ‘곰골’이 다음과 같이 자음접변으로 ‘공골’로 변한 뒤에 ‘공’은 ‘公’자를 음차표기 하였고, ‘골’은 ‘州’자를 훈차(한역)표기한 것이다.

- (1) 고마+골+뫼(熊忽山)>고口+골+뫼>곰+골+뫼>공골뫼(弓忽山)
- (2) 고마+골(熊州)>고口+골>곰골>공골(公州)
- (3) 고마+개+느르(熊浦津)>고口+개+느르>곰개나루>공개나루(熊浦津)  
(현 威悅)

이밖에도 곰개(熊浦)>공개, 곰골(熊洞)>공골, 봄개(春浦)>봉개, 밤고개(栗峴)>방고개 등과같은 동일 환경의 변화 현상이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公山’은 山의 모양이 ‘公’자처럼 생기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풀이한 일부의 견해는 잘못이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공골’(<곰골<고마골)을 ‘公州’로 표기한 이후의 어느 시기에 ‘(公州山)>公山’으로 부르게 된 것

이라 하겠다. 한동안 ‘公山’을 주명(州名)으로 삼은 일이 있는데 이 경우는 경덕왕이 ‘웅진주’를 줄여서 ‘웅주’로 개칭한 것과 동일하다.

이른바 ‘곰나루전설’은 ‘웅진’(熊津)이 한자어로 굳어지면서 본래의 의미인 ‘北·後·大’의 개념이 사라지자 오로지 ‘熊’의 훈인 ‘곰’(짐승)의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 이 곰(짐승)으로부터 ‘곰나루전설’이 기원하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명 전설을 다음에서 거듭 논의하게 될 것이다.

#### 4.3. 옛 지명 ‘소부리’(所夫里)에 대하여

현 ‘부여’(扶餘)는 경덕왕(16년 757)이 ‘소부리’를 개정한 이름이다. ‘소부리’가 변하여 ‘사비’(泗沘)가 되었다. ‘소부리’의 서북에 ‘백마강’(白馬江=所夫里河=泗沘江=白江=白村江)이 흐른다. ‘백강’(白江)은 ‘사비강’을 달리 표기한 별칭이다. 이두 등의 전통적인 차자 표기에 쓰인 ‘白’의 훈음은 ‘숯~슬비’이다. 따라서 ‘白江’은 ‘스비강’으로 추독할 수 있다. ‘백촌강’(白村江)은 『일본서기』에만 오직 2회 나타날 뿐이다. 이 옛 지명은 ‘白江’에 ‘村’이 개재되어 재구조화하였다. 위 ‘白江’의 해독에다 ‘믄술’(村)을 보태면 ‘사비+믄술+강’이 된다. 이 일본측 역사서의 고지명이 후대에 ‘白馬江’(사비믄 ㄹ ㅁ ㅅ ㄹ ㅅ ㅁ ㅅ)으로 표기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백마강’은 『동국여지승람』(1481)부터 비로소 나타날 뿐이다. 이 ‘백마강’은 주변에 여러 지명 전설을 생성 유포하였다.

##### (1) 지명전설; 『삼국유사』(권2 南扶餘 前百濟條)에

또한 사비강변에 한 바위가 있는데 일찍이 소정방이 이 바위에 앉아 용을 낚아 내었다. 그래서 바위위에 용이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용암이란 이름이 생겼다(又泗沘河邊有一巖 蘇定方嘗坐此上 釣魚龍而出 故巖上有龍跪之跡 因名龍巖).

와 같은 전설 중의 ‘용암’(龍巖)이 ‘조룡대(釣龍臺)전설’을 생성한 모태인 듯

하다. 이로부터 대략 200여 년 뒤의 문헌인 『동국여지승람』(제18권 부여현 조)(1481)에 이르러서는

조룡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강에 입하여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홀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므로 큰말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리를 낚아 얻으니 잠간 사이에 날이 개어 드디어 군사가 강을 건너 공격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강을 백마강이라 이르고, 바위는 조룡대라고 일렀다.

와 같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백마강’의 어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왜 ‘조룡강’ 혹은 ‘룡암강’ 혹은 ‘정방강’이 아닌 ‘백마강’인가? 이 경이적인 사건의 주체는 ‘조룡’ 혹은 ‘용암’ 혹은 ‘정방’이지 결코 ‘백마’는 아니다. ‘백마’는 한낱 미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백마강’이란 강명이 보다 훨씬 후대 문헌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까닭도 밝혀져야 할 맞물린 문제이다.

이른바 ‘조룡대’ 전설은 ‘백마강’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한자어화(어휘화)한 후에 발생한 전설이다. ‘백마’의 머리로 미끼를 삼아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전설’도 한자어로 어휘화한 ‘백마강’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이 전설의 주인공이 당나라의 소정방이니 아무리 일러보았자 백제의 망년인 서기 660년을 넘지 못한다. 더구나 소정방은 당나라의 장군(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백마의 머리로 용을 낚을 수 있으며, 용을 끌어당길 때 낚시줄로 인하여 바위(釣龍臺)가 폭 파일 수 있으며, 그 바위에 무릎을 꿇은 자국이 그리도 깊게 남을 수 있는가? 모두가 ‘백마강’의 백마에 코를 걸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지명 전설이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2) 지명전설; 『삼국유사』 권1(1205-1289) 太宗春秋公條에

백제의 옛 기록에 이르기를 부여성 북쪽 끝에 큰바위가 있는데 그 아래가 강물이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의자왕과 후궁들이 참변을 면치 못 할 것을 알고 서로 이르기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하고 앞 다투어 이 바위에 이르러 강물을 향해 몸을 던져 죽었다. 이런 까닭으로 세속에서 이르기를 ‘디어 죽은 바위’(墮死岩)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전해진 말이다. 의자왕은 당 나라에 잡혀가 죽은 사실이 당 나라 역사책(唐史)에 확실히 적혀 있기 때문이다(百濟古記云 扶餘城北角有大岩下臨江水 相傳云 義慈王與諸後宮知其未免 相謂曰 寧自盡 不死於他人手 相率至此 投江而死 故俗云墮死岩 斯乃 俚諺之訛也 但宮人之墮死 義慈卒於唐 唐史有明文).

와 같이 낙화암(落花岩)이 아닌 타사암(墮死岩)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3000궁녀’란 말도 없다. 따라서 의자왕이 궁녀들과 함께 떨어져 죽었다는 말도 거짓이요, 궁녀가 3000명이었다는 말도 거짓이다. 그저 여러 궁녀(諸後宮)이었을 뿐이다. 단순히 ‘타사암과 많은(여러) 궁녀’로 기록되었던 사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문학적 표현으로 각색된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은 얼마든 과장될 수 있고 아름답게(美化) 표현될 수 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비극의 현상이기에 타사암은 낙화암으로 미화 표현되었고, 여러 궁녀를 삼천 궁녀로 확대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참상을 극대화한 전설이라 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문헌에 ‘낙화암’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記)하권(고려 충열왕 13년, 1287)의 백제기에

수많은 궁녀는 청류(清流)로 떨어지고(幾多紅粉墮清流)

낙화암만 대왕포에 우뚝이 솟아 있다.(落花巖聳大王浦)

(할주:浦以王常遊得名 巖以宮女墮死得名 臣因出按親遊其處-포는 왕이 항상 놀았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고, 바위는 궁녀들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신이 나아가 베풀할 때 친히 그 곳에서 놀았다.)

와 같이 처음으로 ‘낙화암’(落花巖)이 나오고, 고려 말기의 이곡(李穀1298-1351)이 ‘조룡대하강자파’(釣龍臺下江自波)란 제목으로 지은 시에(『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조)

“앞 부분 생략--후대의 미약한 자손들이 덕을 계승 못하고, 화려한 궁궐에 사치만 일삼았네. 견고한 성곽이 하루아침에 와해되니 천척 높은 바위 낙화(落花)로 이름짓다. -중간 생략- 천년의 아름다운 왕기 쓸어간 듯 없어지고, 조룡대 아래에 강물만이 출렁대네.”

에 다시 나타난다. 만일 이승휴 자신이 시적 표현으로 처음 쓴 것이라면 그의 작시 연대가 곧 발생시기가 된다. 그렇지 않고 전해오는 말을 다시 인용하였다면 『삼국유사』(1280?) 이후부터 이승휴 이전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곡은 이승휴의 작품에서 옳긴 것이 분명하다. 이후의 문헌인 『여지도서』(영조 때 간행), 『읍지』(영·정조 연간?), 『대동지지』(1864) 등의 부여현조에 낙화암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삼천궁녀’란 어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중 마지막의 『대동지지』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1900년대 이후 현대에 와서 대중가요의 가사에 처음으로 ‘삼천궁녀’가 등장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낙화암’과 ‘삼천궁녀’란 어구가 서기 660년 백제망국과 동시에 발생한 아득한 옛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의자왕이 궁녀와 함께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전언이 거짓임이 그가 당 나라에 끌려가 그 곳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당 나라 역사서에 적혀 있어 밝혀졌듯이 역시 문학적 표현의 허구였음을 새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완진, *홍성지방의 방언*, 홍성군지(홍성군청), 1975.

\_\_\_\_\_,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 출판부), 1980.

김정태, *충남방언의 음운현상과 음운규칙*,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006.

- 김진식, 까치내의 어원고찰, 『어문연구』 29, 1997.
- 김형규, 忠淸南北道 方言 研究, 學術院 論文集 제11집(學術院), 1972.
- 도수희, 논산방언 연구, 『상원』 제4집, 1963.
- \_\_\_\_\_, 충청도방언의 위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1965.
- \_\_\_\_\_, 백제 왕칭호 소고, 『백제연구』 제3집, 1972.
- \_\_\_\_\_, ‘所夫里’고, 『어문연구』 제9집, 1975.
- \_\_\_\_\_,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송녕선생고회기념논총, 탐출판사, 1977.
- \_\_\_\_\_, 충청남도의 언어, 충청남도지,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1979.
- \_\_\_\_\_,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 5, 1981.
- \_\_\_\_\_, 백제어 『白·熊·泗泚·伎伐』에 대하여, 『백제연구』 제14집, 1983.
- \_\_\_\_\_, 충청도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 제9호, 1987.
- \_\_\_\_\_, 백제의 지명 전설에 대하여, 『백제어 연구』(III), 1994.
- \_\_\_\_\_, 금강유역의 언어와 문화 -2002년 어문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_\_\_\_\_, 『백제어 연구』, 아세아문화사, 박사학위논문, 1977.
- \_\_\_\_\_, 『백제어 연구』( I, II, III, IV), 백제문화개발연구원, '87,'89,'94,'00.
- \_\_\_\_\_, 『한국지명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_\_\_\_\_, 『한국의 지명』, 대우학술총서 553, 아카넷, 2003.
- \_\_\_\_\_, 『백제의 언어와 문학』,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 01, 2004.
- \_\_\_\_\_, 『백제어 어휘 연구』, 제이앤씨, 2005.
- 성희재, 충남방언 움라우트 현상의 유형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71, 2000.
- 양주동, 『조선고가 연구』, 박문서관, 1947.
- 조성귀, 옥천방언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지현영, 『한국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2001.

[Abstract]

##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Kumkang* Region

Su-hee Toh

(Professor Emeritu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enters around the etymological meanings of place names of the *Kumkang* region, restricting the discussion to a selected group of place names which make it possible to infer their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light of the latitudinal or longitudinal isoglosses. The legends of *Komnaru* and *Choryongdae*, for instance, derive directly from place names. Dialectal distribution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phonological features that are not very different between upper and lower reaches of the *Kumkang* river. The dialects get much more similar as they go further down to the lower region of the river.

The original “*Komanara*(熊津)”, also called “*Northern Headland*(北津)”, underwent the sound change of *Komannaru* > *Komkang* > *Kumkang*(錦江), the last being alternatively abbreviated as *Kum*(錦). During the last half of the 14th century—around the close of the Koryo dynasty, that is—a literary work gave the beautified name “*Nakhwa-am*”(落花巖), meaning ‘rock-bluff of falling flowers’, to what was originally called *Tasa-am*(墮死岩), so-called because, in the year of 660 when the Paekje dynasty was being ravaged by the invading enemy, a number of court-ladies ended their lives by plunging into the river from there. It was ‘a number of court-ladies’(諸後宮) who died; but by tradition of popular songs, the number has become “three thousand”—a case of hyperbole of course.

keywords: *Kumgang* region, autonomous dialect, isogloss, Southern Chungnam dialect, legend of a place name, *Nakhwa-am* cliff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